

도시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의 제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luential Variables Related to Home Management Ability of Urban Home Maker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李 貞 珩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Jeoung Woo Lee*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吳 京 姬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 Kyung Hee Oh*

— 목 차 —

I. 서론	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1. 연구의 목적	2. 조사도구의 선정
2. 연구의 제한점	3. 조사대상
3. 용어의 정의	4. 자료수집 및 처리
II. 이론적 배경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가정관리능력 및 관련 연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사항
2.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변인	2. 조사결과 및 분석
III. 연구방법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nfluential variables related to Home Management Ability of urban home makers.

This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aspects :

1) to find out which variable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ie, home maker's age, level of education-husband, wife, job-husband, wife, income, duration of marriage), of psychological variables (ie, degree of resourcefulness recognition, degree of stress recognition, degree of life level recognitio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home management ability.

2) to find out which variable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degree of resourcefulness recognition, of stress recognition, and of life level recognition.

3)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significant variables related to home management ability.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F-test, t-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pearson's r, χ^2 -test.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level of education(husband, wife) and occupation of husband were variables to have influences on home management ability.

2) a. The level of education(husband, wife) and income were variable to have influences on degree of resourcefulness recognition.

b. The employment of home makers, income, and the form of family were variables to have influences on degree of stress recognition.

c. The level of education(husband, wife), occupation of husband, income, and duration of marriage were variables to have influences on degree of life level recognition.

3)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home management ability and degree of resourcefulness recognition and of stress recognition($r=0.13$, $r=-0.12$, $p<.05$).

a. The higher degree of resourcefulness recognition, the higher home management ability ($\chi^2=11.17$, $df=4$, $p<.05$).

b. The higher degree of stress recognition, the lower home management ability ($\chi^2=14.64$, $df=4$, $p<.01$).

4) The education level of homemakers ($\beta=0.15$) and income ($\beta=0.12$) were variables to have indirect influences on home management ability through the medium of the degree of resourcefulness recognition ($\beta=0.13$).

5) The employment of home makers ($\beta=-0.17$) was a variable to have indirect influence on home management ability through the medium of the degree of stress recognition ($\beta=-0.12$).

6) The education level of husband($\beta=0.16$) and income($\beta=0.32$) were variables to have direct influences on degree of life level recognition.

7) The degree of life level recognition($\beta=0.13$) and education level of home makers ($\beta=0.17$) were variables to have indirect influences on home management ability through the medium of the degree of resourcefulness recognition($\beta=0.13$).

8) The degree of life level recognition($\beta=-0.22$), the employment of home makers($\beta=-0.17$) and the form of family($\beta=-0.10$) were variables to have indirect influences on home management ability through the medium of the degree of stress recognition($\beta=-0.12$).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가족이 가정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가정 관리자는 가정 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생활변화 요소들에 대처하여 가정의 목표와 가족원의 욕구수준에 맞도록 가정을 운영 및 관리해야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 관리자의 관리행동 및 능력향상에 대한 연구조사는 의의있는 일이라 하겠다. 특히, 가정 관리자가 관리행동을 함에 있어 생활변화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간장 및 압박감은 관리능력 향상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관리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가정관리 능력평가 및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의 영향과 가족의 행복도, 결혼 만족도 및 주부의 자아 실현성과의 관계등에 관한 것일뿐 주부의 스트레스, 자원활용 및 생활수준 등의 인지로 인한 영향은 규명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과 심리적 변인인 스트레스, 자원활용 및 생활수준 등의 인지도가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의 영향에 대해 심리적인 변인(스트레스 인지도, 자원활용 인지도, 생활수준 인지도)이 개입될 때 나타나는 영향력의 규명은 가정관리 능력향상에 좀더 명확한 영향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정관리 능력향상과 관리행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선행연구(김정옥, 1983)에서 도시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던 시기로 밝혀진 초등 교육기 및 중·고등 교육기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을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3. 용어의 정의

1) 가정관리 능력 : 가정 관리자가 가정관리를 하는 능력으로서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관리 행동은 선행연구(이정우, 1982)에 준하여 계획, 조정, 통제, 지도, 평가로 하였다.

2) 스트레스 인지도 : 주부가 가정생활중에 일어나는 일(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에 대한 적응으로 수반된 긴장과 위기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정도를 말한다.

3) 자원활용 인지도 : 매일 매일의 가정상황속에서 가족원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인적 및 비인적 자원에 대한 가정 관리자의 주관적인 평가 정도를 말한다.

4) 생활수준 인지도 : 주부 자신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기가정의 생활수준 정도를 말한다. 이는 색관적으로 평가된 가정 경제상태와 다를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관리 능력 및 관련연구

일반적으로 인간은 생리적 및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설립과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게 되고 인간 스스로가 그때 그때 알맞는 평가를 하며 경험과 학습을 통해 잘못된 것은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장명옥, 1976). 또한, 인간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취사선택하여 수용하거나 이용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자원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가정관리시에 의식적인 자원의 선택 및 적용을 통한 목표성취는 곧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인 것이다(Nickell, Rice & Tucker, 1976). 다시 말해서 가정관리는 가정내외의 자원으로 가족의 목표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합목적적인 행동으로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관리자의 능력이 중요시 된다. Gross등(1980)도 가정관리란, 가족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원사용과 창조를 연루하는 목적적 행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 결국, 가정 관리자가 가정 관리를 잘 했는가는 관리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 가정관리 능력은 가정관리를 행하는 힘으로서 의도적 경험과 훈련을 통한 학습이 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에 개인차가 존재한다. 특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질 높은 관리능력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능력이 강조된다. 먼저, 가정의 목표설정 및 계획수립 능력으로 이러한 능력은 개인의 시간지향성, 독창성 및 창조성, 지각적이거나 개념적인 예견능력 그리고 정보처리 능력 및 인과적 배열 능력과 같은 내외적 통제력 등이 함께 수반되어 발휘되는 것이다(Deacen & Firebaugh, 1981). 또한,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 능력과 바람직한 소비자 및 구매자 역할을 할 능력, 건전한 생활신념하에서 가족을 관리할 능력,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능력 그리고 창의적 관리능력이 있으며(장명

욱, 1982) 이외에도 가정 관리자의 개인적 자질로서 지능, 열의, 인간성에 대한 이해, 상상력, 판단력, 인내력, 적응력, 자기관리 능력 및 의사전달 능력, 자원활용 능력, 정직성, 효율성, 목표지향성, 공감성등의 능력(Nickell, Rice & Tucker, 1976) 그리고 애정, 지식, 기술지도, 관리 숙련도, 육체적 노력등(이인희, 1974)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정관리 능력은 인적 및 비인적 자원에 대해 일련의 관리과정을 통한 행위표출의 힘이다. 선행연구에서 가정관리 과정은 酒井의 가정관리 능력 측정틀을 토대로 한 연구(상정기, 1976; 이정우, 1978; 한상순, 1978, 1979; 김정옥, 1983)에서 6단계 즉, 계획, 조정, 통제(제어), 교시, 지도, 평가로, 다른 연구(이정우, 1982; 이정숙, 이정우, 1984, 오정옥, 1986; 박현미, 1987; 박경규, 1988)에서 5단계 즉, 계획, 조정, 통제, 지도, 평가로 보았고, 그 밖에 계획, 조직, 수행, 평가 4단계로 측정된 연구가 있다(전은옥, 1984). 또한, 장명옥(1976)은 관리행동을 계획적, 창의적, 소비자적, 통솔적, 인간관계적, 작업적, 평가적으로 분류하였는데 대체로 관리행동이 否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 능력과 가족의 행복도간에(한상순, 1978) 그리고 남편의 결혼 만족도간에(오정옥, 1986)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주부가 가정관리 능력이 많을 수록 남편과 자녀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결혼생활 만족도와 가정관리 능력간에는 정적상관이 있었고 특히 조정, 지도, 평가능력과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이정우, 1982). 또한,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 수록 가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계획능력과 조정능력 발휘가 뛰어났다(박현미, 1987). 주부의 자아실현성이 높을 경우 가정관리 능력도 높았다(이정숙, 이정우, 1984). 지역별로는 도시 주부가 농촌 주부보다 관리능력이 더 높았으며(박현미, 1987). 가정관리 행위면에서는 대부분 계획능력이 제일 낮았고(상정기, 1976; 한상순, 1978; 이정우, 1978, 1982; 이정숙, 이정우, 1984) 통제 능력은 높았다(상정기, 1976; 한상순, 1978, 1979; 이정우 1978, 1982; 이정숙, 이정우, 1984;

박경규, 1988). 그러나, 오정옥의 연구(1986)에서는 상반된 결과로 계획 및 평가능력이 제일 높았고 통제능력이 가장 낮았다. 전은옥(1984)과 김정옥(1986)은 평가능력이 가장 낮았다고 하였다. 신유순(1986)은 관리행동의 점수가 높은 집단이 자원활용 및 환경에 대한 지식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관리능력을 많이 발휘한 집단일수록 자원활용에 대한 지식과 환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정우의 연구(1980)에서도 관리지식이 많은 집단일수록 가정관리 성취도가 높았다.

2.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변인

가정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선행연구(상정기, 1976; 이정우, 1982; 김정옥, 1983)를 토대로 하여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결혼지속년수, 가족형태)과 심리적인 변인(스트레스 인지도, 자원활용 인지도, 생활수준 인지도)으로 대별하였다. 그러나, 생활수준 인지도를 제외한 스트레스 인지도 및 자원활용 인지도와 가정관리 능력간에 관계규명을 한 연구는 없으므로 두 심리변인 각각에 대한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

① 연령 : 연령에 따라 가정관리 능력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장명옥(1976)은 30대 주부와 50대 주부가 관리능력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고 오정옥(1986), 박현미(1987), 박경규(1988)의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 관리능력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신유순(1986)은 연령에 따라 계획행동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고 전은옥(1984)은 36세이상인 주부가 35세이하인 주부보다 체력 및 의생활 관리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반면, 상정기(1976), 이정우(1982), 김정옥(1983), 이영미, 이길표의 연구(1984)에서는 연령에 따라 가정관리 능력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특히, 가정생활 주기별로 가정관리 능력을 조사한 연구(김정옥, 1983)에서는 초등 교육기와 중·고등교육기에 이르는

고 시점에서 가정관리 능력점수가 제일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교육기와 중·고등 교육기에 있는 30~40대 주부로 국한시켜 가정관리 능력을 측정해 보았다.

2 교육수준: 주부의 교육의 기회 및 년수는 주부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배우자의 교육정도는 부부간에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와 지식의 상호교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때(이정우, 오경희, 1988) 배우자 및 주부의 교육수준은 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장명옥, 1976; 상정기, 1976; 이정우, 1978, 1980, 1982; 김정옥, 1983; 이정숙, 이정우, 1984; 전은옥, 1984; 박현미, 1987; 박경규, 1988)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또한 농촌주부보다 도시 주부가 더욱 현저하다(박현미, 1987) 특히, 계획, 조정, 지도능력은 교육수준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애정(전은옥, 1984), 성격, 체력관리면에 교육수준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박경규, 1988).

3 직업: 주부의 취업은 가정관리를 하는데 있어 이중역할이라는 신체적 및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것은 선행연구(이정우, 1980)에서 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가정내 과중한 이중역할의 부담으로 가정관리 성취도가 낮았다는 보고에서 알 수 있다. 박경규(1988)는 관리대상중 금전관리면의 능력이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고, 신유순(1986)은 주부의 직업유무가 가정관리 지식에 영향변인임을 밝혔다.

4 소득: 가정내 소득은 경제적 자원으로서 가정관리 행동 및 가정생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박경규의 연구(1988)에서는 월소득에 따라 계획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격관리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김정옥의 연구(1983)에서는 월소득 70~79만원인 가정의 관리능력 점수가 제일 낮았고 90~99만원인 가정의 관리능력 점수가 제일 높았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농촌 주부의 가정관리 대상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박현미, 1987) 가정관리 지식에

영향변인 이었다(신유순, 1986)

5 결혼지속년수: 결혼지속년수는 생활을 통한 여러가지 경험을 주부가 해볼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가정관리 행동의 영향변인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오정옥, 1986, 박경규, 1988)에서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가정관리 능력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도시 주부가 농촌주부보다 현저하였다(박현미, 1987). 이정우의 연구(1980)에서 결혼지속년수가 가정관리 지식에 영향변인임이 입증되었으며, 특히, 환경에 대한 지식과 자원활용에 대한 지식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신유순, 1986).

6 가족형태: 가족원은 주부가 관리해야 할 인적자원으로서 가정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확대가족인 가정의 주부는 핵가족인 가정의 주부보다 관리해야 할 인적자원이 광범위해 지므로 주부는 관리능력을 더욱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오정옥(1986)은 가족형태에 따라 가정관리 대상중 애정·식물, 주거, 가정설비등에 대한 능력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능력점수가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2) 심리적 변인

1 스트레스 인지도: 스트레스란 인간에게 일상의 평형상태를 벗어난 긴장을 야기시키는 역동적인 힘이나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불편한 반응을 의미한다(전세경, 1988) 즉, 스트레스는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사이에 상호교류의 과정이다(Frankenhaeuser, 1980) 학자들마다 스트레스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간과 환경간의 평형을 방해하고 혼란시키는 자극으로 보는 것과 환경적 및 내적요구에 대해 개인, 사회, 조직체계내의 적응능력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보는 것, 그리고 환경과 개인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아 자극과 반응의 매개변수로 스트레스를 고려하는 것이다.

Lazarus와 동료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의 주요 양상은 인간이 환경과 적응하려는 상호교환을 유도하고 해석하는데 인지적 활동 즉, 평가적 인식, 사고, 추론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은 인간

복지에 대한 중요성에 준하여 환경과의 상호교류를 경험하고 변화시키는 각각을 평가하며 그러한 평가는 인간자원과 그것들을 관리할 선택권 및 환경적 요구와 제한에 관한 판단을 포함한다(Lazarus, Choen, Folkman, Kann & Schaeffer, 1980) 결론적으로, 인간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인간의 복지에 그 근본을 두고 환경과의 상호교류에서 인간 스스로가 인지적 활동을 통해 평가하는 주관적이면서 복잡한 감정의 소요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 주부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여러가지 가정적 요인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지만 대체로 주부 자신의 자아실현의 욕구 미충족과 더불어 사회참여로 인한 이중역할의 부담감과 긴장, 자녀교육의 문제, 부부 및 시부모와의 갈등 및 다툼, 배우자와의 사별,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가정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생활사건들을 파악하는데는 개인성향의 차이 즉,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며(Dorenwend & Dorenwend, 1984)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적응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므로 스트레스 인지수준이나 반응정도가 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편,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며(이평숙, 1984, 최동숙, 1989) 교육수준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배종렬, 1985; 장병옥, 1985, 박난희, 1987; 남유리, 1988)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이광수, 1988; 정민자, 1984)로 상반된 주장을 하였고, 사회 경제상태나 소득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이평숙, 1984; 최동숙, 1989), 자녀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았고(박난희, 1987; 이광주, 1988; 최동숙, 1989), 결혼지속년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장병옥, 1985; 최동숙, 1989) 가족형태 및 크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박난희, 1987; 남유리, 1988).

② 자원활용 인지도: 관리란 가정의 목적을 달성시킬 가정자원의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Wetters DE, 1967) 자원은 목표달성을 위한 유용성, 사용

자의 접근 용이성, 상호교환 가능성의 특성이 있으므로(Nickell, Rice, & Tucker, 1976) 가정내 목표성취나, 욕구달성에 수단이 되며 효율적인 자원관리나 자원활용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창조성이 강조된다. 자원 활용성은 가정상황속에서 사람과 사물을 처리하는 가정 관리자의 능력을 말한다. 환언하면, 가정내의 일(사건)에 사회적 및 기술적 지식을 적용함에 있어 창조적 사고를 가미시키는 가정 관리자의 능력이다(Wetters, 1967). 따라서, 효율적인 가정관리는 가족의 만족감과 복지에 기여하고 자원 활용성은 효율적인 가정관리의 활력이며 필요한 힘이다. 가정 관리자는 매일의 생활을 이룩해가는데 가정자원이 함께 어울려 매일의 활동을 통해 가정문제를 해결한다. 자원들은 문제 해결방안의 내용이며 사용된 특정한 자원들이 해결방안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Gross, et al., 1980). 따라서, 가정관리자의 자원에 대한 인지는 가족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Wetters의 연구(1967)에서는 가정 관리자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창조성과 자원활용 점수가 증가하였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인 집단의 가정 관리자가 下인 집단보다 더욱 창조적이고 자원 활용성이 높았다. 가족자원과 스트레스 인지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정민자, 1983; 전세경, 1988; McCubbin, et al., 1983)에서는 가족자원과 스트레스는 否的인 상관을 보였는데 자원을 다양하게 많이 소유한 가족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상황에 잘 적응할 것이므로 스트레스를 덜 인지한다고 하였다.

③ 생활수준 인지도: 주부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정생활 수준은 가정내 실제 수입과 경제적 지위정도에 따라 판단한 생활수준과는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변환경 즉, 이웃들의 생활수준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이정우, 1983)에서 자원 활용 및 환경에 대한 관리지식이 생활수준 인지도가 높을수록 높았다. 또다른 연구(이정우, 1982)에서는 생활수준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정관리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계획, 지도, 평가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부 스스로가 가정생활이 풍요롭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여유를 가질 수록 가정관리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주부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이 가정관리 능력과 스트레스 및 자원 활용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주부가 가정관리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심리적인 변인 즉, 스트레스 인지도, 자원 활용 인지도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며 앞에서 밝혀진 선행연구(이정우, 1988)에 비추어 생활수준 인지도 역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러한 제 영향변인들과의 관계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과 심리변인이 가정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도시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은 어떠한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1〉 가정관리 능력은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연령, 학력, 직업, 소득, 결혼지속년수, 가족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2〉 도시 주부의 스트레스 인지도는 어떠한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2〉 스트레스 인지도는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구문제 3〉 도시 주부의 자원 활용 인지도는 어떠한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3〉 자원 활용인지는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4〉 도시 주부의 생활수준 인지도는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

〈가설 4〉 생활수준 인지도는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5〉 심리적 변인(스트레스 인지도, 자원 활용인지도, 생활수준 인지도)은 가정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5-1〉 스트레스 인지도가 높을 수록 가정관리 능력은 낮을 것이다.

〈가설 5-2〉 자원 활용인지도가 높을 수록 가정관리 능력은 높을 것이다.

〈가설 5-3〉 생활수준 인지도와 가정관리 능력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6〉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과 심리적인 변인이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2. 조사도구의 선정

1) 가정관리 능력 측정도구

도시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이정우, 1978)의 척도를 보완하여 총 50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가정관리 능력이 제일 높은 것은 5점, 제일 낮은 것을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 α 값은 0.92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하위 변인별로는 계획(0.77) 조정(0.77) 통제(0.75) 지도(0.76) 평가(0.83) 이었다.

2) 스트레스 인지도 측정도구

주부가 인지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홍강의, 정도은, 1982)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총 30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스트레스 인지도가 높은것을 5점 인지도가 낮거나 경험이 없음을 1점으로 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0.86으로 매우 높은편이다.

3) 자원 활용인지도 측정도구

주부의 자원 활용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Mc-Shane, Ruth Elizabeth(1987)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가족자원에 대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총 20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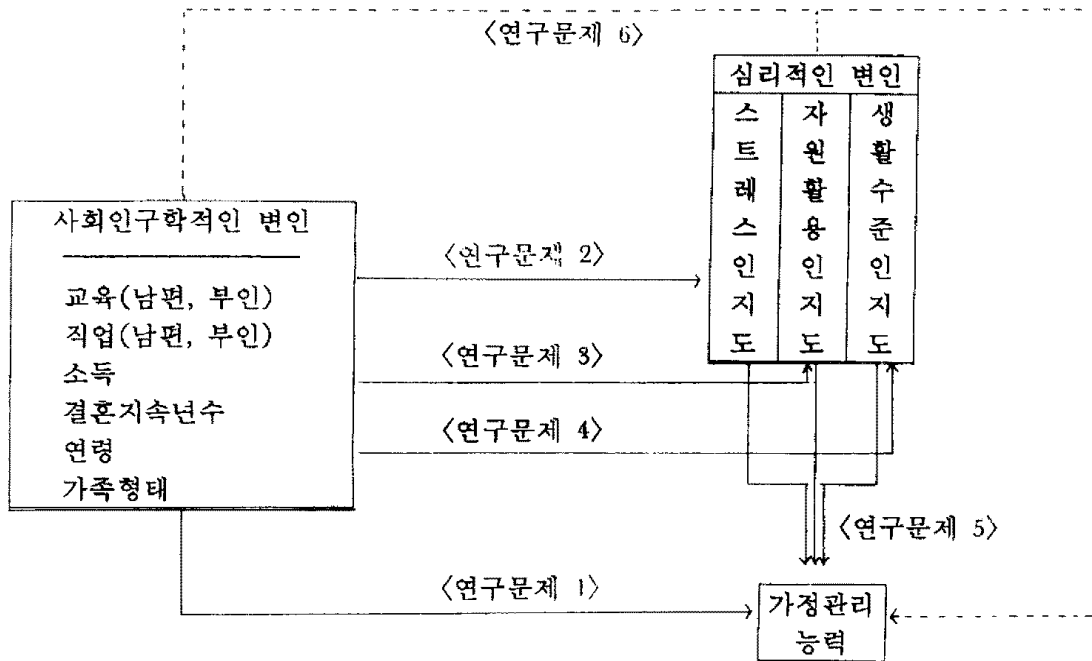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항으로 작성하였다. 항상 그런일이 있음을 5점으로, 전혀 그런일이 없음을 1점으로 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0.77로 높은 편이었다.

3.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자녀를 초등교육기와 중·고등 교육기에 둔 가정주부의 가정관리 능력과 그 영향변인을 측정하고자 의도적 표집을 하였다. 쌍문동, 필운동, 대치동 등 3개洞을 임의 선정하여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응답자의 대부분이 30~49세 주부였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이 30~40대 주부로 국한 되었다.

4.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를 위하여 1990년 5월말~6월초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척도에 수정을 한 후 본 조사를 同年 6월 중순부터 하순에 걸쳐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였으나, 420부가 회수되었는데 이중 기재미비로 제외된 나머지 363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Mean, F-test, t-test, χ^2 검증, Duncan's 사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 다중상관계수 R,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경로분석(path Analysis)를 실시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30~39세가 42.7%이며 40~49세가 57.3%로서, 30~40대 주부들이며, 고졸이상이 77.4%로 비교적 학력이 높은편이고, 남편의 학력도 대졸 이상이 52.3%로 높은 편이다. 가정내 소득이 70만원 이상인 가정이 71.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부가 인지하는 생활수준은 중류이상이 89%로 나타났다.

결혼지속년수는 11~20년인 가정이 68.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부가 취업하지 않고 있는 가정이 과반수이상(65.3%)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과 관리직인 가정이 절반이상(73.2%)이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약 4/5정도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변수	구분	N	빈도(%)	변수	구분	N	빈도(%)
부인 학력	국졸	17	4.7	남편 학력	중졸이하	25	6.9
	중졸	65	17.9		고졸	148	40.8
	고졸	178	49.0		대졸	139	38.3
	대졸이상	103	28.4		대학원졸이상	51	14.0
	합계	363	100.0		합계	363	100.0
소득	50만원 미만	23	6.3	결혼 지속년수	10년 미만	46	12.7
	50만원이상~70만원미만	80	22.0		11~15년	114	31.4
	7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23	33.9		16~20년	136	37.5
	100만원이상	137	37.7		21년이상	67	18.5
	합계	363	99.9		합계	363	100.1
남편 직업	비숙련직	13	3.6	연령	30~39세	155	42.7
	관매숙련직	56	15.4		40~49세	208	57.3
	사무직	166	45.7		합계	363	100.0
	관리직	100	27.5	부인직업	무(없다)	237	65.3
	전문직	28	7.7		유(있다)	126	34.7
합계	363	100.0	합계	363	100.0		
가족 형태	확대가족	74	20.4	생활수준	상	177	48.8
	핵가족	289	79.6		중	146	40.2
	합계	363	100.0		하	40	11.0
				합계	363	100.0	

였다(79.6%).

2. 조사결과 및 분석

1) 가정관리 능력

본 조사대상자의 가정관리 능력의 일반적인 경향을 평균점수로 비교한 결과 총평균 3.66으로서(표 2 참조) 가정관리 능력 점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리행위별로 조정(3.77), 통제(3.99), 지도(3.90) 능력은 높으나, 계획(3.22), 평가(3.42)능력이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이정우, 1978, 1982; 한상순, 1978, 1979; 이정숙, 이정우, 1984)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계획은 가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리능력이며, 평가는 다음의 계획수립을 위한 feedback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부가 가정관리시 매사에 계획을 세우고 수행 후 평가해 보는 태도함양이 필요하다.

관리대상별로는 지식 및 기능(3.31)이 제일 낮았고, 식물(3.85)과 금전(3.82)관리면이 높았다.

표 2. 각 변인의 총평균

가정관리행위 대상	계획	조정	통제	지도	평가	전체
애정	2.97	3.74	3.60	3.86	3.74	3.58
기질	3.44	3.63	3.89	4.01	3.12	3.62
지식	3.09	3.56	3.00	3.94	2.98	3.31
기능	3.80	3.75	4.26	3.38	2.93	3.63
시간	3.67	3.44	4.39	3.82	3.02	3.67
금전	3.74	3.48	4.29	3.94	3.65	3.82
의복	2.96	4.03	4.26	3.81	3.59	3.73
식물	2.85	4.26	4.19	4.18	3.78	3.85
주거	2.56	4.01	3.91	4.09	3.88	3.69
가정설비	3.09	3.80	4.14	3.98	3.57	3.71
공공시설						
총 평균	3.22	3.77	3.99	3.90	3.42	3.66
자원 활용	인 지도				3.74	
스트레스	인 지도				2.14	

가족의 지식 및 기능의 활용은 가정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능력개발이

표 3.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별 가정관리 능력 및 심리적 변인

변수	집단	N	계획		조정		통제		지도		평가		가정관리능력 (전체)		자원활용		스트레스		생활수준				
			Mean	D	F	Mcan	D	F	Mcan	D	F	Mcan	D	F	Mcan	D	F	Mcan	D	F	Mcan	D	F
부인 교육 수준	국	17	3.01	B		3.58	B		3.53	B	3.04	B	3.40	B	3.36	B	2.39	A	2.82	B			
	중	65	3.28	A·B		3.94	A		3.86	A	3.39	A	3.70	A	3.69	A	2.18	A·B	3.11	B			
	고	178	3.16	A·B	2.24	3.71	A·B	1.19	3.89	A	4.29	A	2.58	A	3.29	A	5.98	B	2.08	B	2.08	B	9.50
	대	103	3.33	A		3.80	A·B	4.06	4.01	A	3.53	A	3.74	A	3.88	A	2.08	B	3.60	A			
남편 교육 수준	중	25	3.04	B		3.74		4.04	3.73	B	3.14	B	3.54	B	3.53	B	2.25	A	2.80	C			
	고	148	3.20	A·B		3.75		3.94	3.85	A·B	3.40	B	3.63	B	3.69	A·B	2.17	A·B	3.23	B			
	대	139	3.21	A·B	2.13	3.77	0.55	4.01	3.94	A·B	2.89	B	4.16	B	2.85	A	3.24	A	1.93	B	1.93	B	13.62
	대학원	51	3.41	A		3.87		4.08	4.05	A	3.70	A	3.82	A	3.87	A	2.00	B	3.58	A			
남편 직업	비	13	2.96	B		3.53	B		3.59	B	3.18	B	3.41	B	3.53		2.29		2.85	D			
	판매	56	3.29	A·B		3.83	A·B	4.04	3.88	A	3.45	A·B	3.70	A	3.62		2.16		3.02	C·D			
	사무	166	3.15	A·B	2.30	3.77	A·B	3.98	3.88	A	2.52	A·B	3.64	A	2.37	A	1.58	A	0.47	B·C	0.47	B·C	10.43
	관리	100	3.26	A·B		3.73	A·B	3.96	3.95	A	3.38	A·B	3.66	A	3.79	A	2.13		3.62	A·B			
	전문	28	3.46	A		3.92	A	4.20	4.11	A	3.61	A	3.86	A	3.80	A	2.06		3.82	A			
	소	23	3.04			3.78		3.93	3.70	B	3.33		3.55		3.28	B	2.46	A	2.52	C			
결혼 지속년수	10년미만	80	3.26		0.74	3.91	1.75	4.07	3.91	A	3.46		3.72	A	3.76	A	2.12	B	3.23	B	3.74	B	23.92
	11~15년	123	3.21			3.71	3.97	3.97	3.83	A·B	3.36		3.62	A	3.78	A	2.14	B	3.31	B			
	16~20년	136	3.23			3.88	A	4.05	3.92	A	3.48		3.71	A	3.82	A	2.09	B	3.72	A			
	21년이상	67	3.22			3.61	B	3.94	3.79		3.32		3.58		3.66		2.17		3.63	A			
부인 직업	집	237	3.22	-0.095	3.77	-0.250	4.02	3.87	3.87		3.40		3.66		3.77		2.08		3.36				
	무	126	3.22		3.78		3.94	3.96	3.96		3.47		3.68		3.69		2.25		3.47				
가족 형태	핵	74	3.20	-0.361	3.75	-0.429	4.01	3.86	3.86		3.34		3.61		3.72		2.26		3.46				
	확	289	3.23		3.78		4.01	3.91	3.91		3.45		3.68		3.75		2.11		3.38				
연령	31~39세	155	3.21	-0.304	3.73	-1.100	3.95	3.88	3.88		3.35		3.62		3.80		2.10		3.32				
	40~49세	208	3.23		3.80		4.03	3.92	3.92		3.48		3.69		3.70		2.17		3.45				

N=363 p<.05* p<.01**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4. 가정관리 능력과 심리적 변인간의 상관관계 (1)

가정관리 능력 심리적 변인	계획	조정	통제	지도	평가	전체
생활수준 인지도	0.08	-0.03	-0.06	0.06	0.06	0.03
자원활용 인지도	**	-0.08	-0.04	*	0.10	*
스트레스 인지도	**	-0.02	-0.07	*	-0.10	-0.12

P<.05* p<.01** P<.001***

모색되어야 하겠다.

2)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1 사회 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F-test, t-test,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

㉠ 연령별

주부의 연령에 따라 가정관리 능력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계획 및 평가능력이 30~40대를 막론하고 낮았고 통제, 지도 조정능력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연령이 가정관리 능력에 영향변인이 아니라고 밝힌 이정우(1982), 상정기(1976), 이영미(1984), 김정옥(1988)의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며, 영향 변인 이라고 밝힌 장명옥(1976), 전은옥(1984), 오정옥(1986), 신유순(1986), 박현미(1987), 박경규(1988)의 연구 결과와 일부 상반되는 것이다.

㉡ 교육수준별

주부와 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라 가정관리능력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5). 즉, 주부의 학력이 국졸인 가정보다 중졸이상인 가정의 주부가 관리능력이 높았다. 이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관리 능력이 높다는 김정옥의 연구(1983)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남편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가정주부의 관리능력이 고졸이하인 가정주부의 관리능력보다 높았다. 관리 행위별로는 주부의 학력에 따라 조정(p<.05), 지도(p<.01), 평가(p<.05) 능력이 유의적이었는데 중졸 이상인 주부의 능력이 국졸인 주부의 능력보다 높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가정관리 능력의 주요 변수라고 밝힌 이정우(1978, 1982), 상정기(197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남편의 학력에 따라 지도(p<.05), 평가(p<.01) 능력이 유의적이었는데 남편의 학력이 대학원 졸 이상인 가정주부의 지도능력이 중졸이하인 가정주부보다 높았으며 평가능력은 남편이 대졸이하인 가정주부보다 대학원 졸이상인 가정주부가 더 높았다.

남편의 학력에 따라 지도(p<.05), 평가(p<.01) 능력이 유의적이었는데 남편의 학력이 대학원 졸 이상인 가정주부의 지도능력이 중졸이하인 가정주부보다 높았으며 평가능력은 남편이 대졸이하인 가정주부보다 대학원 졸이상인 가정주부가 더 높았다.

㉢ 직업별

남편의 직업에 따라 가정관리 능력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p<.05) 남편이 비숙련직에 종사하는 가정보다 판매숙련직 및 사무직·관리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정의 주부가 관리능력이 더 높았다. 관리행위별로는 지도(p<.05)면이 유의적이었다. 주부의 직업 유무에 따라 가정관리 능력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정숙, 이정우(1984), 오정옥의 연구(1986)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금전관리면에서 관리능력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밝힌 박경규의 연구(1988)결과와 상반된다.

㉣ 소득별

소득에 따라 전체 가정관리 능력은 차이가 없었으나, 관리행위별로 지도(p<.05)면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 미만인 가정보다 50만원이상~70만원미만인 가정과 100만원이상인 가정의 주부가 지도능력이 더 높았다. 이는 소득이 주부가 관리해야 할 경제적 자원으로, 시장경제의 변동에 따라 가정경제를 잘 운영하기 위하여 가족원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해야 하는 가정 관리자의 지도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월소득에 따라 가정관리 능력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오정옥의 연구(1986)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며 김정옥의 연구(1983)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 결혼지속년수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전체 가정관리 능력은 차이가 없으나 관리행위별로 조정(p<.05)면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속년수가 16~20년인 가정주부의 조정능력이 가장 높았고 10년 미만과 21년이상인 가정주부의 조정능력이 낮았다. 일반적으로 결혼지속년수가 결혼생활을 통한 경험 및 지식이 축적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주부의 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점을 완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한국도시주부의 결혼지속기간에 따른 가정관리 능력 규명이 좀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지속년수가 영향변인이라고 밝힌 오정옥(1986), 박경규(1988)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다.

㉔ 가족형태

가족 형태별로 가정관리 능력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오정옥, 1986)의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중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이 가정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2 심리적 변인

㉕ 주부의 스트레스 인지도는 평균 2.14로 비교적 낮은편이었다(표 2). 스트레스 인지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인으로는 소득($p < .01$), 주부의 직업유무($p < .01$), 그리고 가족형태($p < .05$)로 나타났다(표 3). 즉,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가정의 주부보다 50만원미만인 가정의 주부가 더욱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 상태가 낮을 수록 스트레스가 높다고 밝힌 이평숙의 연구(1984)와 소득과 스트레스의 역관계를 밝힌 최동숙의 연구(1989)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취업주부가 비취업 주부보다 더욱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취업주부의 경우 스트레스양이 높다고 밝힌 남유리의 연구(1988)와는 상반된다.

확대가족의 가정주부가 핵가족의 가정주부보다 더욱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형태별 스트레스양에 별차이가 없다고 밝힌 박난희의 연구(1987)결과에 상반되는 결과이

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미루어보아 소득, 주부의 직업유무, 가족형태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므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㉖ 자원활용 인지도

주부의 자원활용 인지도는 평균 3.74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주부의 자원활용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주부와 남편의 교육수준($p < .001$, $p < .05$) 소득($P < .001$)으로 나타났다(표 3). 즉, 주부의 학력이 국졸인 주부보다 중졸이상인 주부가 자원활용 인지도가 높았고, 남편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주부보다 대졸이상인 주부가 자원활용 인지도가 높았으며 소득이 50만원미만인 가정의 주부보다 50만원이상인 가정의 주부가 자원활용 인지도가 더 높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자원활용도가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원활용도가 높다고 밝힌 Wetters의 연구(1967)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보아 교육수준 및 소득에 따라 자원활용 인지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므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㉗ 생활수준 인지도

주부가 인지한 생활수준은 중류이상인 89%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인지하고 있었다(표 1). 생활수준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주부와 남편의 교육수준($p < .001$) 및 남편의 직업($p < .001$), 소득($p < .001$) 그리고, 결혼지속년수($p < .05$)였다(표 3). 즉, 주부의 학력이 고졸이상인 가정의 주부가 중졸이하인 주부보다 더욱 생활수준 인지도가 높았다. 또한 남편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가정의 주부보다 대졸이상인 가정의 주부가 더욱 생활수준 인지도가 높았다. 남편의 직업이 비숙련직인 가정의 주부보다 전문직인 가정의 주부가 생활수준 인지도가 더 높았다. 또한 소득이 50만원미만인 가정의 주부보다 100만원이상인 주부가 더욱 생활수준 인지도가 높았으며 결혼지속년수가 21년이상인 주부가 15년이하인 주부보다 더욱 생활수준 인지도가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보아 생활수준 인지도는 주부 및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소득, 결혼 지속년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므로 <가설 4>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3) 가정관리 능력과 심리적 변인간의 관계

가정관리 능력과 심리적 변인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4참조). 심리적변인중 생활수준 인지도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었다. 자원활용 인지도와는 $r=0.13(p<.05)$ 인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스트레스 인지도와는 $r=-0.12(<.05)$ 인 낮은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여기서 자원활용 인지도 및 스트레스 인지도와 가정관리 능력간에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상관계수 R을 산출하였다(표 5참조). $R=0.14$ 로 세 변인간에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두 심리적 변인의 독립적인 영향은 자원활용 인지도($\beta=0.09$), 다음이 스트레스 인지도($\beta=-0.07$)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 능력 점수집단*1을 구분하여 자원활용 인지도 점수집단*2, 스트레스 인지도 점수집단*3 그리고 생활수준 인지도 점수 집단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표 6참조) 자원활용 인지도 및 스트레스 인지도와 가정관리 능력간에는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자원활용 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정관리 능력점수도

*1. 가정관리 능력 점수 집단(31.4%, 70.8%에서 구분)

상 : 197~240점
 중 : 176~196점 최소치 : 50점
 하 : 109~175점 최대치 : 250점

*2. 자원활용 인지도 점수집단 (30.0%, 72.5%에서 구분)

상 : 82~100점
 중 : 70~ 81점 최소치 : 20점
 하 : 34~ 69점 최대치 : 100점

*3. 스트레스 인지도 점수집단(29.5%, 71.9%에서 구분)

상 : 72~115점
 중 : 56~ 71점 최소치 : 30점
 하 : 33~ 55점 최대치 : 150점

표 5. 가정관리 능력과 심리적 변인간의 상관관계 (II)

가정관리 능력 / 심리적 변인	(R) 다중상관계수	RSQ change	R ²	β-value	F-value
자원활용 인지도	0.13	0.02	0.02	0.09	3.86*
스트레스 인지도	0.14	0.00	0.02	-0.07	

높았으며, 스트레스 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정관리 능력점수는 낮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가설 5-1> <가설 5-2>는 긍정되었으나, <가설 5-3>은 부정되었다. 따라서 자원활용 인지도 및 스트레스 인지도는 가정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증명되었다.

4)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제 변인의 영향력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심리적변인이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수간에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해 본 결과, 주부의 교육수준과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표 7참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계산해 본 결과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변수중에서 Backward step-wise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경로분석에 사용할 변수를 부인과 남편의 교육수준, 부인의 직업유무, 소득, 가족형태로 선정하였다. 스트레스 인지도, 자원활용 인지도 및 생활수준 인지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회귀 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1.91~2.14로 잔차간의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선정된 변수를 이용하여 가정관리 능력에 대한 경로분석을 하여 본 결과 두 가지 경로 모델이 성립되었지만 생활수준 인지도를 포함시킨 Path II 모델에서 가정관리 능력과의 관계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난 변수만을 발췌한 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표 6. 가정관리 능력 점수 집단과 심리변인 점수집단간의 관계

가정관리 능력 점수 집단	점수집단			중						상						전체			
	심리 변인	생활수준	자원활동	스트레스	생활수준	자원활동	스트레스	생활수준	자원활동	스트레스	생활수준	자원활동	스트레스	생활수준	자원활동	스트레스	생활수준	자원활동	스트레스
下	55 (15.15)	44 (12.12)	22 (6.06)	67 (18.46)	40 (11.02)	52 (14.33)	55 (15.15)	30 (8.26)	40 (11.02)	177 (48.76)	114 (31.40)	114 (31.40)	143 (39.39)	146 (40.22)	143 (39.39)	106 (29.20)	363 (100.00)	106 (29.20)	363 (100.00)
中	45 (12.40)	41 (11.29)	42 (11.57)	64 (17.68)	66 (18.18)	67 (18.46)	37 (10.19)	36 (9.92)	34 (9.37)	146 (40.22)	143 (39.39)	143 (39.39)	143 (39.39)	146 (40.22)	143 (39.39)	106 (29.20)	363 (100.00)	106 (29.20)	363 (100.00)
上	14 (3.86)	24 (6.61)	43 (11.35)	12 (3.31)	41 (11.29)	35 (9.64)	14 (3.86)	41 (11.29)	28 (7.71)	40 (11.02)	106 (29.20)	106 (29.20)	106 (29.20)	40 (11.02)	106 (29.20)	106 (29.20)	363 (100.00)	106 (29.20)	363 (100.00)
전체	114 (31.40)	109 (30.03)	107 (29.48)	143 (39.39)	147 (40.50)	154 (42.42)	106 (29.20)	107 (29.48)	102 (28.10)	363 (100.00)	363 (100.00)	363 (100.00)	363 (100.00)	363 (100.00)	363 (100.00)	363 (100.00)	363 (100.00)	363 (100.00)	363 (100.00)

가정관리능력 *생활수준인지도 $x^2=3.34$ $df=4$ $P>.05$

가정관리능력 *자원활동인지도 $x^2=11.17$ $df=4$ $P<.05^*$

가정관리능력 *스트레스인지도 $x^2=14.61$ $df=4$ $P<.01^{**}$

하여(표 8참조), 수정된 경로모형을 작성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가지 경로모형 즉, path I과 path II로서, path I은 부인의 교육수준($\beta=0.15$)와 소득($\beta=0.12$)이 자원활동 인지도($\beta=0.13$)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가정관리 능력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부인의 직업유무($\beta=-0.17$)는 스트레스 인지도($\beta=-0.12$)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정관리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Path II에서, 남편의 교육수준($\beta=0.16$)과 소득($\beta=0.32$)은 생활수준 인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인의 교육수준($\beta=0.17$)과 생활수준 인지도($\beta=0.13$)는 자원활동 인지도($\beta=0.13$)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정관리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인의 직업유무($\beta=-0.17$), 가족형태($\beta=-0.10$), 생활수준 인지도($\beta=-0.22$)는 스트레스 인지도($\beta=-0.12$)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정관리 능력에 미쳤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제 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가정관리 행동의 질적인 향상과 밝고 명랑한 가정생활을 운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중 가정관리 능력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인은 주부의 교육수준($p<.05$), 남편의 교육수준($p<.05$) 남편의 직업($p<.05$)이었다.

2)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중 심리적변인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인은 다음과 같다. 주부의 교육수준과 남편의 교육수준 및 소득에 따라 생활수준 인지도 및 자원활동 인지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는 생활수준 인지도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소득 및 주부의 직업유무와 가족형태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3) 가정관리 능력과 심리적변인간에 관계를 다중상관계수 R을 산출하여 알아본 결과 낮은 정적

표 7. 변수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자원활용인지											
2. 스트레스인지	***										
3. 생활수준인지	-.57										
4. 연령	***	***									
5. 교육수준(M)	.18	-.20									
6. 교육수준(F)	-.10	.03	*								
7. 직업유무(F)	***	*	***								
8. 직업(M)	.16	-.11	.31	-.04							
9. 소득	***	*	***	**	***						
10. 결혼 지속년수	.20	-.11	.27	-.16	.73						
11. 가족형태	.08	-.17	-.07	-.11	.04	-.04					
	*		***		***	***					
	.11	-.06	.32	-.04	.48	.44	.09				
	***	*	***		***	***		***			
	.18	-.13	.39	-.09	.47	.46	-.02	.37			
	*		*	***	***	***					
	-.11	.03	.13	.76	-.19	-.26	-.07	-.09	-.10		
	*	*					*				
	.12	-.12	-.04	.02	.00	-.06	.13	-.06	-.06	.01	

P<.05* P<.01 P<.001***

표 8. 가정관리 능력에 대한 경로모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F	R ²	비고
지원활용인지도	교육수준(F)	0.03	0.15*	9.75***	0.05	path I-a
	소득	0.00	0.12*			
스트레스인지도	직업(F)	-0.18	-0.17**	10.69**	0.03	path I-b
가정관리능력	자원활용인지도	0.12	0.13*	6.56*	0.02	path I-a'
	스트레스인지도	-0.12	-0.12*	5.47*	0.02	path I-b'
생활수준인지도	교육수준(M)	0.04	0.16**	38.15***	0.18	path II-a
	소득	0.01	0.32***			
자원활용인지도	생활수준인지도	0.09	0.13*	10.95***	0.06	path II-b
	교육소득(F)	0.03	0.17**			
스트레스인지도	생활수준인지도	-0.14	-0.22***	11.13***	0.09	path II-c
	직업(F)	-0.18	-0.17***			
	가족형태	-0.13	-0.10*			
가정관리능력	자원활용인지도	0.12	0.13*	6.56*	0.02	path I-b'
	스트레스인지도	-0.12	-0.12*	5.47*	0.02	path I-c'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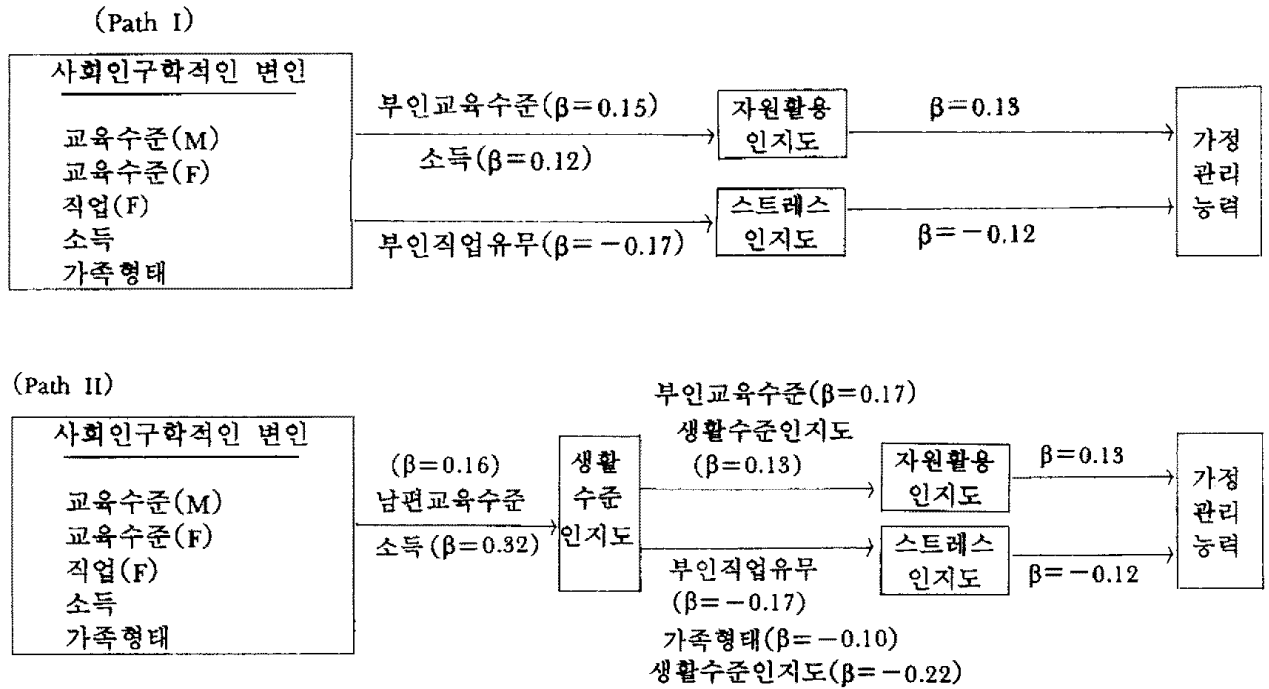


그림 2.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

상관관계($R=0.14, P<.05$)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χ^2 검증을 한 결과 자원활용 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정관리 능력점수는 높았고 스트레스 인지도가 낮을수록 가정관리 능력점수는 높았다.

4)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제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변인을 매개로 하는 두가지 형태의 경로모델이 성립되었다. Path I의 경우, 부인의 교육수준, 소득이 자원활용 인지도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력과 주부의 직업유무가 스트레스 인지도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가정관리 능력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Path II의 경우, 소득 및 남편의 교육수준이 생활수준 인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고, 부인의 교육수준 생활수준 인지도는 자원활용 인지도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가정관리 능력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과, 부인의 직업유무 가족형태 및 생활수준 인지도는 스트레스 인지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정관리 능력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부의 교육수준과 소득은 자원활용 인지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정관리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즉, 여성의 교육을 통한 여러가지 지식과 정보 습득으로 자원활용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가정관리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교육의 질적 향상은 곧 가정관리 능력배양의 기본바탕이 되고 나아가서 가정관리 행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때 여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가정내 소득의 향상은 주부의 자원활용인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관리능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부의 직업유무가 스트레스 인지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정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데, 취업 주부가 스트레스 인지도가 더 높은것으로 보아(표 4참조) 취업 주부는 이중적 역할로 인한 과중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관리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것으로 해석된다.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고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참여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여성의 취업현상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취업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과 그 요인에 수반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인의 교육수준과 생활수준 인지도는 자원 활용 인지도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가정관리 능력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과 부인의 직업유무, 가족형태, 생활수준 인지도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가정관리 능력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주부는 생활수준을 인지하게 되고 자원을 활용하여 가정관리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부가 사회경제적 여건이 부족하여도 현생활에 만족하며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정관리에 임한다면 관리능력의 증진 및 가정의 행복도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주부가 취업한 경우 이중역할의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느낄 수가 있을 것이며, 확대가족의 경우 주부가 관리해야 할 인적단위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관리능력을 더욱 발휘해야 하므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부 스스로가 생활의 여유를 느끼지 못하고 현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경우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가정관리 능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원활용 인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스트레스 인지도가 낮을수록 가정관리 능력 발휘 정도는 높았다. 이는 가정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가족의 욕구충족과 목표달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원은 가정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자원을 많이 활용한다면, 이에 대한 창의력 및 융통성 등의 관리 능력이 증대되어야 하고 주부가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느끼는 압박감과 긴장 즉,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게끔 노력하는 것이 가정관리 능력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부는 가정 생활속에서 받게되는 스트레스에 대처 및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가족간의 대화 시간을 갖는 다거나 가족 오락시간 및 취미생활, 여가활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며 선행연구(이정숙, 이 정우, 1984)에서 같이 주부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부간 가족간에 협조와 이해의 분위기도 주부의 가정관

리 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사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태도함양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30~40대 주부는 학령기의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부모의 이러한 태도가 자녀의 중요한 모델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가족간의 스트레스를 극소화하는 행동과 언어사용 및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가정내 자원의 재활용이 가능한것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장안력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30~4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자원활용 및 가족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과 창조력 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 취미활동등의 사회교육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가정관리 능력함양을 위한 내용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측에서도, 지나친 계층간의 상대적인 빈곤감, 허영심 및 물자 낭비를 조성하는 광고를 삼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차 가정관리 능력연구시, 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인 변인, 가정생활 주기에 따른 연구 및 인간 발달적인 측면 즉, 중, 노년기의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정옥(1989).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에 관한 연구. 여성문제연구(17), 효성여대.
- 2) 김정옥(1983).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에 관한 연구. 여성문제연구(12), 효성여대.
- 3) 남유리(1988).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연구. 이대석사논문.
- 4) 문숙재(1980).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조사.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37).
- 5) 박경규(1988).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논문.
- 6) 박관희(1987). 가정생활에서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요인과 그 적응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논문.

- 7) 박현미(1987). 가정관리능력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이대석사논문.
- 8) 상정기(1976). 가정관리 능력과 학력과의 상대적 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 부산교대논문집 12(2).
- 9) 신유순(1986). 전북지역주부의 가정관리지식과 관리행동에 관한연구. 전북대석사논문.
- 10) 오정옥(1986).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남편의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 11) 이광주(1988).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논문.
- 12) 이정우(1978).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숙대논문집(18).
- 13) 이정우(1982). 가정환경의 요인이 가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대논문집 (22).
- 14) 이정우(1983). 가정관리 지식과 가정관리행동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창간호).
- 15) 이정우(1980). 가정관리 성취에 관한 연구. 숙대 박사학위논문.
- 16) 이정숙·이정우(1984). 도시주부의 자아실현성이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 17) 이정우·오경희(1988).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
- 18) 이영미·이길표(1984). 행위와 대상에서 나타난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 19) 이평숙(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제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20) 장명옥(1976). 우리나라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의 실태조사와 그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가정대 논문집 1.
- 21) 장병옥(1985). 도시 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대석사논문.
- 22) 전세경(1988).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석사논문.
- 23) 전은옥(1984)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 교직주부를 대상으로 성신여대 석사논문.
- 24) 최동숙(1989).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27).
- 25) 한상순(1978).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과 가족의 행복도와의 관계. 건국대 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 2.
- 26) 한상순(1979). 서울 주부들의 가정관리의 실태조사. 건국대 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 3.
- 27) 홍강의·정도은(1982). 사회재적응 평가척도 제작 방법론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1(1).
- 28) Boss, P.(1987). Family Stress. in Handbook of Marriage & the Family (ed) Sussman M. B. & Steinmetz, S.K. Plenum Press, New York & London 695-875.
- 29) Dodson, Laura Sue, et al.(1977) Family counseling system approach Print in U.S.A.
- 30) Deacon, R.E. & F.M., Firebaugh(1981).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 Bacon, Inc.
- 31) Dorenwend, B.S. & Bruce P. Dorenwend.(1984). Stressful Life Events & Their Contexts. Rutgers University Press, New Brunswick, New Jersey.
- 32) Gross, Crandall & Knoll.(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Prentice-Hall.
- 33) Hansen, D.A. & Reuben Hill.(1964). Families Under Stress. in Handbook of Marriage & the Family (ed) Harold T. Christensen, Rand McNally & Co. Chicago.
- 34) Lazarus, Richard S.(1976). Patterns of Adjustment. McGraw-Hill Inc. Kogakusha, LTD.
- 35) McCubin, H.I. et al.(1980). Family Stress & Coping :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Nov.
- 36) McCubin, H.I.(1979). Integrating Coping Behavior in Family Stress Theor.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May.
- 37) McShane, Ruth Elizabeth.(1987).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Chronic Illness, Family Stress, Coping & Resources for Management on Family Adap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h. D.
- 38) Mills, James W.(1982). Coping with Stress : A Guide to Living. John Wiley & Sons Inc.
- 39) Nickell, Rice & Tucker.(1976). Management in Family Living. *Jhon Wiley & Sons Inc.*
- 40) Selye, Hans.(1980). Selye's Guide to Stress Research Vol 1. Van Nostrand Reinhold Co.
- 41) Wetters, D.E.(1967). Creative Aspects of Home Manager's Resourcefulness. The Penn. State University Ph.D.